

# 조선시대 직물에 나타난 동물문양의 유형과 특성

장현주\* · 하종경\*\*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 동명정보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전임강사\*\*

##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Animal Patterns Used on Fabric of Chosun Dynasty

Hyun-Joo Jang\* · Jong-Kyung Ha\*\*

Full-time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eju National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Tong Myoung Information University\*\*

(2004. 12. 16 투고)

### ABSTRACT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ymbolic meaning of Korean traditional animal patterns, to analyze their figurative characteristics focusing on fabric relics of Chosun Dynasty, and to search their internal beauty as well as their external beauty.

Animal patterns can be classified as Individual type, the type that only animal patterns are used, and Compound type, the type that animal patterns are used with other patterns. The Individual type was not found at all. Only the Compound type, compounded with two or three other patterns, were found. Among the other patterns used in the Compound type, botanical patterns and heaven-and-earth-shaped patterns were the majority while letters patterns were rarely used. Bird patterns take enormously large part of the animal patterns.

In terms of the arrangement, animal patterns are classified as Dense type, Sparse type, and Picturesque type. The three types are almost equal in their quantity. Picturesque type is found comparatively a lot.

Animal patterns are much more frequently used in female clothes than in male clothes. For female clothes, they are mostly used in some parts of the clothes with ornamental effect. But, for male clothes, they are mainly used all over the fabric by weaving animal patterns on it.

Not just their external beauty, animal patterns have also internally beautiful characteristics, such as keeping away from wicked ghosts, hoping for good luck, emblematic features, having ideological meanings, and so on.

Key words: keeping away from wicked ghosts(벽사적 의미), hoping for good luck(길상적 의미), emblematic features(상징적 의미), having ideological meanings(사상적 의미)

## I. 서론

인간과 달리 대부분의 동물은 활동 영역이 한 군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곳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하나의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을 연결하며 신과 인간이 통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다. 그 의식용 및 노동력을 제공하는 효용성을 지닌 존재, 미래를 예견하며 풍요와 풍년을 가져다주는 신적인 존재 등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존재로 해석되며<sup>1)</sup>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국신화인 단군 신화에서부터 이미 토템사상이 있었으며 우리민족의 始祖인 단군 자신도 인간과 곰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믿으며 동물을 신성시하여 왔다<sup>2)</sup>. 그 후에도 계속 청동기와 철기시대의 암각화, 고구려의 고분벽화, 신라의 토우와 토기, 백제의 금동대향로, 고려 무덤의 호석, 조선의 민화 등에서 동물의 모습은 다양하게 형상화 되어 왔으며 그 외 설화, 민속신앙, 세시, 놀이, 속담, 태몽, 풍수설, 우리의 일상 생활용품과 공예품 그리고 복식류 등에서도 동물을 의인화 또는 형상화하여 사용해 왔다.

동물문양에 관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동물문양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직조문에 나타난 동물문양의 특성에 관하여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각 나라와 민족마다 선호하는 동물이 다르고 같은 동물이라도 할지라도 그에 대한 관념과 태도가 다르며 동물은 같은 문화권내에서도 보는 장소와 시간,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동물문양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조선시대 직물 유물을 중심으로 동물문양의 조형적인 특성을 분석하여 우리 조상들이 활용한 동물문양의 외형미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의미까지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즉 조선시대 직물 유물에 나타난 동물문양의 유형과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출토복식 자료와 사찰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문양의 구성요소, 배치구도, 소재, 용도 등을 고찰하고 동물문양이 가지는 사상적, 상징적, 벽사적, 길상적 의미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하고자 한다.

## II. 동물문양의 종류와 상징성

동물이 가진 관념과 상징성으로 인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형상화하여 사용해 왔다. 직물에 많이 사용되는 동물을 크게 실존 동물과 상상 동물로 구분하고 다시 실존동물을 포유류, 조류, 어류, 파충류, 곤충류 등으로 분류하여 형태와 상징성을 알아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각 동물들의 유형과 상징성

실존 동물	포유류						
		호랑이	사슴	토끼	기린	다람쥐	박쥐
		권력, 무사, 용기, 잔인, 근엄, 용맹	영적 신성동물, 장수, 귀공, 길상, 우애, 우정	태음, 달	용혈함 四靈의 하나	다산, 재물, 풍요	다남, 장수, 행복, 행운 五福→壽福康寧 (장수, 부귀, 건강, 德, 自然死)

실존 동물	조류						
		학	까치	평	공작	닭	기러기, 오리, 원앙
	천수, 고귀한 신분, 영적 존재	기쁜 소식, 길조, 행운	품위, 화려함, 덕, 영광, 위용, 보은	문인의 고귀함, 권세, 관운형통	미래를 예지, 희망찬 출발, 상서로움, 영리, 참을성, 신뢰, 武勇	부부정조, 백년동락, 생산, 행복	
	어류· 파충류· 곤충류						
		잉어	물고기	거북	뱀	나비	매미
	장수, 자손번창, 득남, 출세, 효행, 자수성가, 재생산	부귀, 여유 쌍어는 부부화합, 조화	무한한 우주세계, 장수, 길상, 미래를 예시 四靈의 하나,	풍년, 다산	자유연애, 미호, 행복, 고양이와 혼합되면 장수, 덩굴식물과 혼합되면 자손번창	군자의 五德(文, 信, 清, 廉, 儉), 고결, 청결	
상상동물							
	용	봉황	이무기	백호	현무		
만물조화의 능력을 갖춘 영물, 권위자, 통치자, 왕, 四靈의 하나	봉(수컷)+ 황(암컷) 고상, 품위, 태평성대, 四靈의 하나	용이 되려다 못 되고 물 속에 산다는 전설상의 큰 구렁이	서쪽(오른쪽), 호랑이 형상, 태백신, 四神의 하나	북쪽(뒤쪽), 거북과 뱀의 형상, 四神의 하나			

이 중에서도 특히 용은 治水를 잘하는 통치자 및 절대 권력을 가진 왕 등을 상징하며 농경중심 사회에서 특히 중요시하여 다양하게 표현했으며 구체적 인 형상은 다음 <표 2>와 같다

### Ⅲ. 동물문양의 특성

조선시대 직물에 사용된 동물문양의 특성을 고찰 하기 위하여 출토복식자료와 사찰소장자료를 사용

하였다. 출토복식자료는 선형 연구된 출토복식 관련 보고서를 참고로 하였으며 사찰 소장자료는 경상남도 양산 소재 통도사에 소장된 자료를 실증 고찰 하였다.

직조, 염색, 채회, 자수 등 문양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조에 의해 문양이 나타난 경우에 한하여 조사했으며 사용된 직물의 실증자료 내역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2> 여러 가지 형태의 용 문양3)

正龍	升龍	降龍	行龍
			
머리가 정면을 향하고 몸은 구불구불하며 발은 상하좌우 각 1개. 정면으로 단정하게 앉은 형태	머리가 위로, 꼬리가 아래로 향하는 형태	머리가 아래로, 꼬리가 위로 향하는 형태	몸이 측면으로 향하고 머리를 쳐들고 꼬리를 세우고 발톱은 아래로 향하며 걷고 있는 형태
立龍	團龍	二龍戲珠(雙龍搶珠)	蒼龍教子
			
몸이 수직이며 머리를 쳐들어 옆을 향하며 서 있는 모습과 유사한 형태	구름+용으로 구성. 용은 중간에 있으며 구불구불하며 꿈틀 기어가는 모양. 사방에는 상서로운 구름이 휘감기어 원형을 이루고 있음	2마리 용+구슬로 구성. 한 마리는 위, 한 마리는 아래 혹은 한 마리가 왼쪽, 한 마리가 오른쪽에 있으며 불타는 구슬은 2마리 사이에 있음	큰 용+작은 용으로 구성. 큰 용은 위에 있으며 아버지를 나타내며 작은 용은 아래에 있으며 자식을 나타냄

<표 3> 동물문양이 사용된 직물의 실증자료 내역4)

	제1기	제2기	제3기	출처별 유물수
출토복식자료	청주한씨, 원주원씨, 파평윤씨 복식 8점	남양홍씨, 용인이씨, 양천허씨, 여흥민씨, 장기정씨, 홍우협, 동래정씨, 이응해장군, 탐등군, 안동권씨, 밀창군, 풍산홍씨, 광주이씨, 경주이씨, 수성최씨, 완산최씨 복식 52점	풍산홍씨, 이연응, 김해허씨, 안동김씨, 영왕비 복식 20점	80점
사찰소장자료	-	-	통도사 소장품 12점	12점
시기별 유물수	8점	52점	32점	92점

제 1기는 14세기~임진왜란전 16세기, 제 2기는 17~18세기 초반, 제 3기는 18세기 중반(영,정조대)~19세기로 구분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기 유물이 8점, 제2기 유물이 52점, 제3기 유물이 32점으로 총 92점으로 제1기의 유물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제1기에 해당하는 출토유물에 관한 보고서는 이외에도 다수 있지만<sup>5)</sup> 동물문양이 사용된 직물의 빈도수는 다른 시기에 비해 훨씬 적었다.

### 1. 구성요소에 따른 특성

동물문양이 직조된 직물패턴 중 문양의 구성요소에 따라 동물문양만 단독으로 사용된 단독형과 동물문양이 다른 문양과 조합되어 사용된 복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복합형은 두 가지 유형 즉 동물문+식물문, 동물문+천지형상문, 동물문+문자문이 조합된 복합형 I의 유형과 세 가지 유형 즉 동물문+식물문+천지형상문, 동물문+문자문+천지형상문,

〈표 4〉 구성요소에 따른 유형별 출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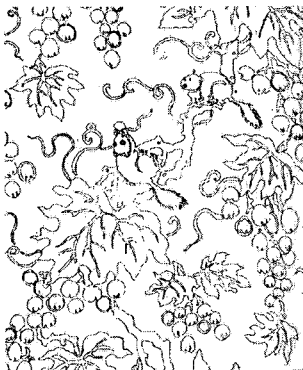
분류		문양의 종류	유물수 (출현율:%)	총 유물수 (출현율:%)	
단독형	동물문	-	0(0%)	0(0%)	
복합형	복합형 I	동물문+식물문	용, 봉황, 까치, 다람쥐, 호랑이, 나비, 벌+포도, 연화, 석류, 모란, 국화, 소나무, 매화, 불수	29 (31.52%)	56 (60.87%)
		동물문+천지형상문	용, 학, 봉황, 기린, 이무기, 물고기, 박쥐+구름, 화염, 수파, 보문	23 (25%)	
		동물문+문자문	봉황, 박쥐+원형 壽	4 (4.35%)	
	복합형 II	동물문+식물문+천지형상문	용, 새, 벌, 나비, 학, 다람쥐, 봉황, 물고기+연화, 석류, 모란, 국화, 포도, 매화, 영지, 도화, 당초, 불수+보문, 구름, 해, 달, 괴석, 기하문, 수파	33 (35.87%)	36 (39.13%)
		동물문+문자문+천지형상문	용+壽+보문, 구름	2 (2.17%)	
		동물문+식물문+문자문	박쥐+壽+당초	1 (1.09%)	
			92(100%)		

동물문+식물문+문자문이 조합된 복합형 II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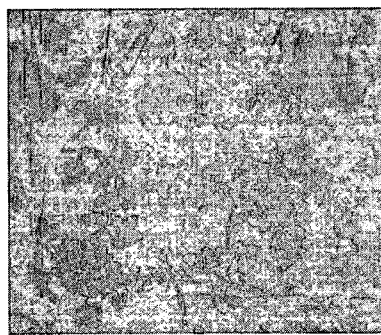
〈표 4〉에서 보면 동물문양만 단독으로 사용된 단독형은 한 점도 없고 모두 복합형이며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유형이 조합된 복합형 I의 비중이 비교적 높다. 그리고 동물문양이 식물문양, 천지형상문과 조합된 유형의 비중은 높으며 문자문양과 조합된 유형은 비중이 훨씬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동물문양이 문자문양 보다는 식물문양이나 천지형

상문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문양과 어우러져 하나의 문양패턴으로 많이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을 즐기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성향으로 인해 문양의 소재 또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물을 그대로 취하여 많이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그림 1〉~〈그림 6〉은 동물문양이 직조된 직물패턴의 대표적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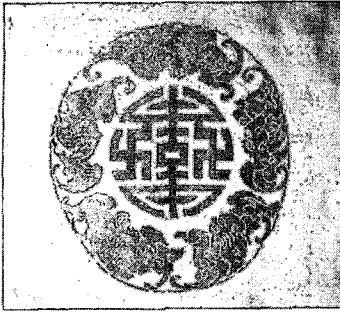
〈그림 1〉 복합형 I  
(동물문+식물문)  
조선시대복식 연구, p.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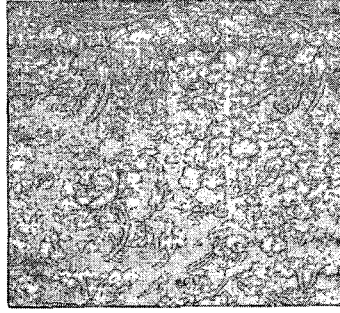
〈그림 2〉 복합형 I  
(동물문+식물문)  
조선시대 피륙의 무늬, p.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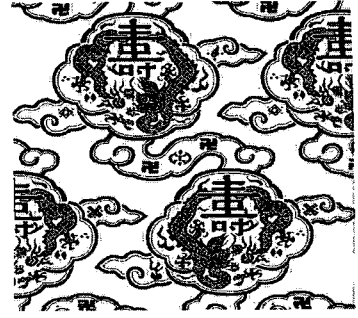
〈그림 3〉 복합형 I  
(동물문+천지형상문)  
조선시대 피륙의 무늬, p. 8.



〈그림 4〉 복합형 I  
(동물문+문자문)  
한국 직물 오천년, p.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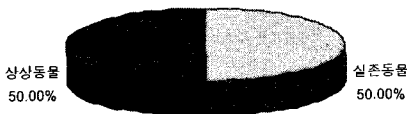


〈그림 5〉 복합형 II  
(동물문+식물문+천지형상문)  
조선시대 피륙의 무늬, p.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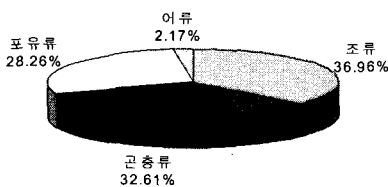


〈그림 6〉 복합형 II  
(동물문+문자문+천지형상문)  
전주이씨묘출토복식문양집, p. 30.

문양으로 사용된 동물의 종류와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존동물과 상상동물이 사용된 빈도는 각각 50%로 같다(그림 7). 상상동물 보다는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실존동물을 직물의 문양으로 사용하기는 훨씬 수월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본 연구 조사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비중이 같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조사한 출토복식의 대부분이 조선시대 양반가의 의복인 까닭도 있지만 실존동물이 가지는 상징성 즉 장수, 다남, 행복, 자손 번창 등의 소박한 염원 이상으로 인간의 상상에 의해 창조된 상상동물이 가지는 다양한 상징성 즉 절대적인 권력, 만물조화의 능력을 갖춘 영물, 고상함, 품위 등을 간접하게 기원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림 7〉 실존동물과 상상동물의 유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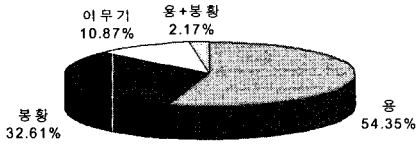


〈그림 8〉 실존동물의 유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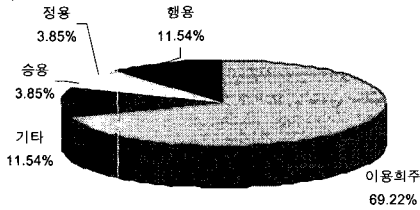
실존동물 중에서는 조류(36.96%), 곤충류(32.61%), 포유류(28.26%), 어류(2.17%)로 땅위 혹은 물 속에 사는 동물보다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조류 및 곤충류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그림 8). 인류는 예로부터 하늘에 신의 세계를 설정하고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자유로이 왕래하는 동물을 새라고 생각했으며 이런 새를 인간의 영혼을 타계로 운반하는 운반자로 보며 신성시 숭배하는 조류숭배사상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에 이미 새의 깃털을 관에 꽂는 조우관, 조미관, 새의 날개 모양의 금속 장신구 등 새의 모양을 본 따서 복식에 응용하여 왔다. 이 시기 옷감에 사용된 문양 중에서 각종 새의 비중이 높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상동물 중에서는 용(54.35%), 봉황(32.61%), 이무기(10.87%), 용과 봉황이 함께 사용된 경우(2.17%)가 있는데 용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그림 9). 이무기는 용이 되려다 못 되고 물 속에 산다는 전설상의 큰 구렁이로서 주로 여의주를 입에 물지 않은 형태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 보다는 만물 조화의 능력을 갖춘 절대 권력자를 상징하는 용문양을 훨씬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용문양은 왕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된 반면 중국에서는 이무기를 포함한 용문양은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 시기 조선시대 유통된 직물 중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문단직물이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9〉 상상동물의 유형비



〈그림 10〉 용 문양의 유형비

〈그림 10〉은 용문양의 유형비를 나타낸 것으로 二龍戲珠 즉 두 마리의 용이 불타는 구슬을 중앙에 두고 있는 형태가 가장 많은 비중(69.22%)을 차지하고 있어 조선시대 직물문양으로 유행한 용의 형태를 알 수 있었다. 그 외 몸이 측면으로 향하고 머리는 들고 꼬리를 세우고 발톱은 아래로 향하여 걷는 형태인 行龍, 머리가 위로 꼬리가 아래로 향하는 升龍, 머리가 정면을 향하고 정면으로 단정하게 앉은 모습인 正龍, 그 외 구불구불 기어가는 형태도 있었다.

## 2. 배치구도에 따른 특성

### 1) 배치구도의 유형

직물에 나타난 문양의 배치구도에 따라 충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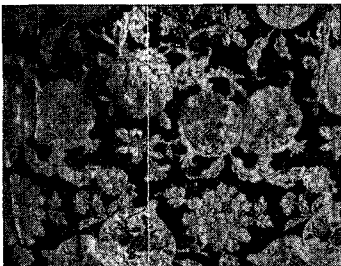
산점형, 회화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림 11〉~〈그림 13〉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충전형은 대상 전체 면에 문양을 가득 채우는 배치구도이며 대부분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구성된다. 산점형은 장식하려는 표면을 같은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그 안에 단위문을 규칙적으로 반복 배치하는 구도이며 회화형은 사물을 그림 그리듯이 묘사해서 그 자체를 장식문양으로 사용하는 배치구도이다.

동물문양이 사용된 직물 문양의 배치구도별 출현율은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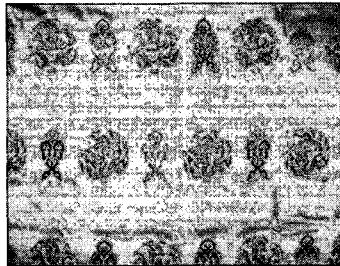
〈표 5〉 배치구도에 따른 유형별 출현율

	유물수			유형별 소계 (출현율: %)
	제1기	제2기	제3기	
충전형	8	29	5	42(45.65%)
산점형	0	11	20	31(33.70%)
회화형	0	12	7	19(20.65%)
시기별 소계 (출현율: %)	8	52	32	9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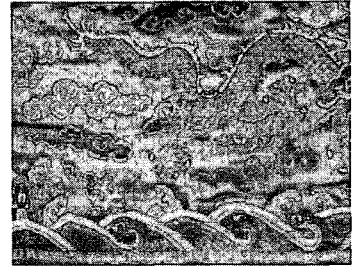
〈표 5〉에 의하면 충전형과 산점형의 비중이 높으며 회화형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선행 연구된 보문양<sup>6)</sup>과 구름문양<sup>7)</sup>의 연구에서는 산점형과 충전형의 비중에 비해서 매우 낮았던 회화형(0.9%)의 비중이 본 연구에서는 20.6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동물문양이 대부분 식물문과 천지 형상문과 함께 사용되어 마치 한 폭의 사실적인 풍경화처럼 구성된 예가 많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색사와 금사를 사용한 장화단, 망단 등의 중조직 직물 외에 문단직물 등에도 조직을 달리하여



〈그림 11〉 충전형 배치구도  
(조선시대 피륙의 무늬, p. 162)



〈그림 12〉 산점형 배치구도  
(통도사 소장품)



〈그림 13〉 회화형 배치구도  
(통도사 소장품)

문양 그 자체를 한 쪽의 그림처럼 묘사한 예가 많은 것도 그 이유로 볼 수 있다.

### 2) 반복 단위의 유형

반복단위를 알 수 있는 유물을 반복단위의 배열에 따라 구분하면 사각형 패턴으로 볼 수 있는 배열이 많았다. 즉 비교적 반복단위가 간단한 경우에는 브릭형 패턴을(그림 6), 그리고 반복단위가 비교적 복잡한 경우에는 사각형을 반듯하게 쌓아 놓은 듯한 사각형 패턴(그림 5)을 많이 사용했다. <그림 5>처럼 반복단위가 비교적 복잡한 경우에는 반복단위의 위치를 상하좌우로 옮겨 배열하는 브릭형 패턴이나 하프드롭 패턴보다는 비교적 간단하게 사각형을 쌓아올리는 사각형 패턴으로 배열하는 것이 제작하기에 수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 3. 소재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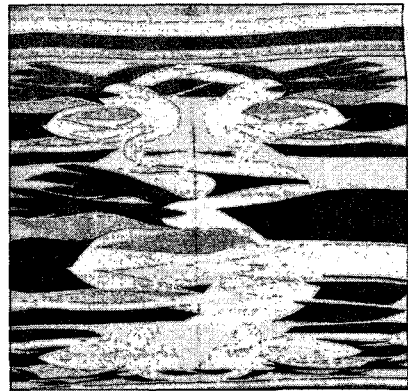
동물문양이 사용된 직물은 크게 견직물과 모직물로 구별할 수 있다. 견직물은 紋紬, 紋綃, 紋綾, 紋緞, 紋羅 등의 일반직물과 織金, 蟒緞, 壯花緞의 중조직 직물이 있었으며 모직물은 철직 또는 침모직으로 제작한 絨직물이 있었다.

<표 6>에서 유형별 출현율을 보면 견직물이 95.65%, 모직물이 4.35%를 차지하며 견직물 88점 중에서는 일반직물이 71점, 중조직 직물이 17점으로 일반직물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 이것은 조선시대 제사 및 제직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금사, 은사, 색사 등을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는 중조직 기법은 일반직물을 제작하기보다 훨씬 많은 노력과 기술을 요하므로 비교적 일반직물에 비해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것은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같다.

일반직물 71점 중에서는 주자직의 紋緞직물이 47점으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조선시대를 緞의 시대라 할 정도로 이 시기에는 주자직으로 무늬를 나타내는 紋緞직물이 발달했으며 본 연구에서도 紋緞의 비중이 가장 높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용도가 모두 카펫이지만 동물문양이 견직물 외에 모직물에도 사용된 점이 특징이다. 식물문, 기하문양 등이 사용된 모직물 외에도 동물문양이 사용된 모직 카펫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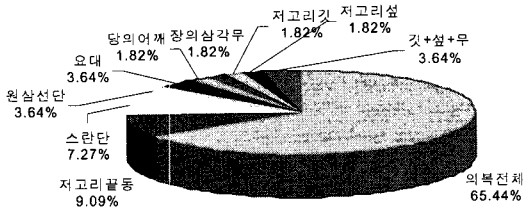


<그림 14> 모직카펫  
(한국 직물 오천년, p. 285)

<표 6> 동물문양이 사용된 직물의 유형별 출현율<sup>8)</sup>

분류		유물수			총 유물수 (출현율:%)	유형별 소계 (출현율:%)	
		제1기	제2기	제3기			
견직물	일반 직물	紋紬	0	11	0	11(11.96%)	
		紋綃	0	1	6	7(7.61%)	
		紋綾	0	3	2	5(5.43%)	
		紋緞	6	30	11	47(51.09%)	
	紋羅	0	0	1	1(1.09%)		
	중조직직물	織錦	2	1	4	10(10.87%)	
		蟒緞	0	0	4	4(4.35%)	
壯花緞		0	0	3	3(3.26%)		
모직물	철직 침모직	絨	0	3	1	4(4.35%)	4( 4.35%)
시기별 소계		8	52	32	92(100%)		





〈그림 15〉 의복 전체와 부분에 사용된 비율

#### 4. 용도에 따른 특성

동물문양이 사용된 복식류를 성별이 구별되는 의복과 기타로 구분하여 용도 특성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동물문양이 사용된 복식류의 용도별 출현율

	의복류												기타						시기별 소계				
	남자						여자						불교장식품	대(소)렴금	전금	지요	훈	카펫		보공용직물	미상		
	철릭	직령	중치마	배자	장의	두루마기	동다리	요대	저고리	치마	스란단	당의	원삼	장옷	대대								
제1기									4		2			1									8
제2기	1	1	1		6			1	14	3	1	1	2	3	1		7	2	2	1	3	2	52
제3기				2		1	2		3		1	1	2	1		12	3				1	3	32
유형별 소계	1	1	1	2	6	1	2	1	21	3	4	2	4	5	1	12	11	2	2	1	4	2	92(100%)
성별 소계	15(16.30%)						40(43.48%)						37(40.22%)										

남자의복 보다 여자의복에 동물문양을 훨씬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자의복 40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저고리(21점, 52.5%)이다. 저고리 중에서는 길 혹은 길을 포함한 전체에 동물문양이 사용된 경우는 12점(57.14%), 깃, 끝동, 섷, 무 등 부분에 사용된 경우가 모두 9점(42.86%)으로 길 혹은 길을 포함한 전체에 사용한 경우가 조금 더 많지만 장식을 위한 목적으로 부분에 사용한 경우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저고리의 경우는 구성선을 따라 깃, 끝동, 섷, 깃+섷+결마기에 길과 구별되게 동물문양이 나타난 직물을 사용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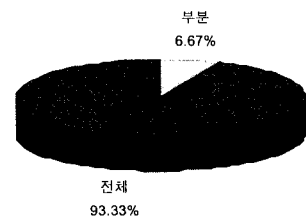
〈그림 15〉를 보면 남녀 의복류 55점 중 의복의 길을 포함한 전체에 동물문양이 사용된 경우는 36점(65.44%)이며 그 외 부분적으로 동물문양이 사용

된 경우는 끝동 5점(9.09%), 스란단 4점(7.27%), 원삼의 선단 2점(3.64%), 요대 2점(3.64%), 담의 어깨부분 1점(1.82%), 장의 삼각무 부분 1점(1.82%), 저고리 깃부분 1점(1.82%), 저고리 섷부분 1점(1.82%), 저고리 깃+결섷+삼각무 1점(3.64%)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자 의복 40점 중에서 18점(45%)은 의복의 부분에 동물문양이 직조된 직물을 사용했으며 〈그림 16〉, 남자 의복 15점 중에는 단지 1점(6.67%)만 의복의 부분에 동물문양이 직조된 직물을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의복의 전체에 동물문양이 직조된 직물을 사용했다(〈그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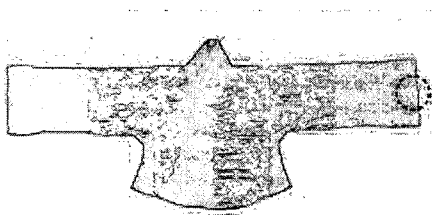
〈그림 16〉 여자의복 중 전체 : 부분의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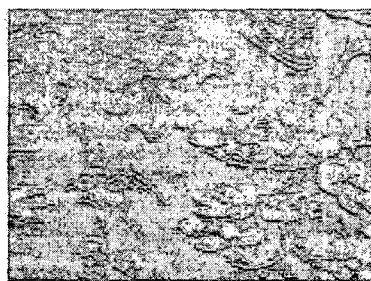
〈그림 17〉 남자의복 중 전체 : 부분의 비

그러므로 남자 의복의 소재 보다 여자 의복의 소재에 동물문양이 사용된 예가 많았지만 여자 의복

의 경우 남자의복에 비해 장식적 효과를 위해 부분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훨씬 많았으며 남자의복의 경우는 의복 전체에 동물문양이 직조된 직물을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8>은 여자 저고리의 소매 끝동에 동물문양이 직조된 직물을 부분적으로 사용한 예이다.



시하는 원시신앙이다. 고대 우리나라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에서도 이러한 토착사상을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호랑이와 곰을 들 수 있다. 곰의 경우는 직물의 문양으로 사용한 예가 거의 없지만 호랑이는 조선시대 남자 관복의 흉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양으로 카펫 등에도 많이 사



<그림 18> 여자 저고리의 끝동에 동물문양이 사용된 예  
(조선시대 직물의 무늬, pp. 156-157)

그리고 중조직 직물 중 織錦은 의복에서 스란단, 요대, 당의 어깨부분 등 대부분 의복의 부분에 장식적인 효과를 위해 사용했으며 그 외 蟒緞, 壯花緞은 불교 장식품으로 탁의, 가사의 소재로 사용되었다.

## 5. 동물문양의 의미

조선시대 직물에 문양으로 사용한 동물들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곤충류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상동물도 포함된다. 본 연구의 결과 동물문양만이 단독으로 사용된 예는 없었으며 모두 식물문, 천지 형상문, 문자문 등과 함께 사용되었다. 다른 문양들과 함께 어울려 사용된 동물문양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1) 사상적 의미

동물문양을 직물에 사용한 배경에는 토착사상, 조류숭배사상, 음양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토착사상은 미개사회에서 씨족부족 혹은 씨족적 집단의 성원과 특정의 동식물 혹은 자연물을 특별한 혈연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하여 신성

용되었다.

두 번째로 조류숭배사상을 들 수 있는데 대부분의 동물은 활동 영역이 한 군데로 국한되어 있지 않고 두서너 군데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속계와 타계를 넘나드는 영매 혹은 신의 사자로 인식되어 신과 인간이 통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자 역할을 한다고 믿어 왔다. 특히 하늘을 날 수 있는 조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존재로 생각되어 북방문화에서 새는 샤만의 의사에 따라 신계와 인간계의 매개자로 영혼을 타계로 운반하는 수단이라고 믿으면서 자연스럽게 조류 숭배 사상이 생겨났다. 특히 봉황은 모든 새의 왕으로 하늘의 사상을 상징하는 웅대한 四靈獸의 하나이며 五色의 紋彩를 가지고 五音의 소리를 내는 새로 상징되었다<sup>9)</sup>. 본 연구에서 각종 조류 문양의 출현율(36.96%)이 높은 것도 이런 이유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음양사상을 들 수 있는데 직물에 사용된 동물문양은 대부분 두 마리가 쌍을 이루어 평화롭게 어울려 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원앙, 봉황, 오리, 기러기, 사슴, 학, 잉어 등의 경우 암수 두 마리가 함께 묘사되어 부부 정조, 행복 등을 상징하

고 있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음양은 만물을 둘로 나누는 범주이며 이 음양의 조화로인 상호작용에 의해 만물이 생성하고 존재한다는 음양사상의 이론에 따르면 압, 수컷이 함께 어울려 있는 모습 또한 음과 양의 조화로 볼 수 있다.

## 2) 상징적 의미

일반적으로 문양은 인간만이 가진 의미 있는 상징적인 사과의 표현물로서 대부분의 전통문양은 다양한 상징성을 가지는데 직물에 사용된 동물문양 역시 다양한 상징성을 가진다. 즉 권력, 용맹, 효도, 우애, 우정, 무병장수, 자손번창, 부귀영화 등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의복에 사용된 동물문양은 사회적인 신분을 상징하는 역할도 겸했다. 특히 조선시대는 강력한 왕권이신분사회로 의복에 신분을 표시하려고 노력했으며 신분에 적합한 의복을 착용할 것을 법으로 규제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동물문양을 의복에 사용함으로써 신분상징이 가능했던 것이다. 즉 용은 절대 권력자인 왕의 신분, 학은 고고한 문관의 신분, 호랑이는 용감한 무관의 신분, 봉황은 고고한 왕비의 신분 등을 상징한다. 의복에 사용된 동물문양만으로도 그 사람의 신분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 3) 벽사적 의미

예로부터 동물이 요사스런 귀신이나 적을 물리치는 벽사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어 우리의 일상 생활주변 뿐만 아니라 복식에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상상의 동물로 분류된 四神 즉 청룡, 백호, 주작, 현무에서 이런 벽사성은 두드러진다. 이 중에서도 용은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어 나쁜 잡귀들을 쫓아낼 수 있고 자신이 처해 있는 장소와 용도에 맞추어 사악한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수호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0)</sup>. 그리고 호랑이의 경우에도 약하고 가난하며 착한 자를 도와주는 신령스런 동물로 인식되

어 왔으며 조선시대에는 매년 정초가 되면 민가에서 호랑이 그림을 그려 용 그림과 함께 대문이나 중문에 붙여 잡귀를 쫓는 풍습이 있었다<sup>11)</sup>. 즉 동물이 가진 강한 힘과 거대함으로 인해 지킴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복식에도 널리 사용되었다.

## 4) 길상적 의미

길상성은 우리나라 전통문양이 가지는 공통된 특성으로 동물문양 역시 이러한 길상적인 의미를 가진다. 특히 四靈으로 알려진 용, 봉황, 거북, 기린 등의 瑞鳥, 瑞獸는 성인의 출현 또는 길조가 있을 때 나타난다고 믿으며 운수가 좋은 조짐 등으로 해석하여 문양의 소재로 많이 사용했다.

그 외 다람쥐, 박쥐 등의 동물문양은 다남, 다복, 장수 등을 염원하는 문양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동물의 다산이 풍요와 풍년을 촉진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풍요의 신, 재물신 등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시대 중기 이후 여인들의 지위가 하락하면서 그나마 여성의 지위를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자식 즉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므로 인해 아기를 갖기 위한 노력이 하나의 신앙처럼 굳어져서 기자신앙이 생겨나며 다손, 다남 등의 염원을 상징하는 문양을 많이 사용했다. 그 외에도 가족의 무병장수, 다복, 출세 등의 염원을 상징하는 문양들을 많이 사용했으며 잉어, 박쥐, 거북, 닭, 사슴 등이 그 예이다.

## IV. 결론

우리민족은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에서부터 실제로 존재했던 실존 동물은 물론이며 상상 동물을 설화, 민속신앙, 세시놀이, 속담, 태몽, 풍수설에 등장시키며 이러한 동물의 형상을 본 따서 일상 생활용품, 공예품, 복식류 등에 다양하게 사용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직조문에 나타난 동물문양의 유형과 다양한 조형 특성을 고찰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선시대 직물에 사용된 동물문의 유형은 먼

저 구성요소에 따라 동물문양만 단독으로 사용한 단독형과 동물문양이 다른 종류의 문양과 조합된 복합형으로 분류하면 단독형은 한 점도 없으며 모두 두세 개 유형이 조합된 복합형에 속했다. 그 중에서는 두 가지 유형이 조합된 복합형 I (60.87%)이 세 가지 유형과 조합된 복합형 II (39.13%)의 비중보다는 비교적 높았으며 특히 식물문양, 천지형상문과 조합된 유형의 비중이 높으며 문자문양과 조합된 유형의 비중은 낮았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물, 천지형상 등의 자연물을 그대로 취하여 자연스럽게 하나의 문양패턴으로 구성한 것으로 자연스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용된 실존 동물문양 중에서는 조류(36.96%) 및 곤충류(32.61%)가 월등하게 높으며 상상 동물 중에서도 용(54.35%), 봉황(32.61%)의 비중이 높는데 모두 하늘을 날 수 있는 동물들로 조류승배사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동물문양의 배치구도에서는 층전형(45.65%), 산점형(33.70%), 회화형(20.65%)의 비중이 서로 유사한데 선행 연구된 보문양, 구름문양의 경우와 비교해서 회화형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동물문양이 대부분 식물문양과 천지형상문양들과 함께 어울려 마치 한 폭의 사실적인 풍경화처럼 구성된 예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 동물문양이 사용된 직물은 견직물(95.68%)과 모직물(4.35%)이다. 견직물로서는 紬, 絹, 綾, 緞, 羅, 織錦, 蟒緞, 壯花緞 등이 있었으며 이 중 緞의 비중(51.09%)이 월등하게 높았다. 그리고 일반직물(77.17%)에 비해서 금사, 은사, 색사를 사용하여 동물문양을 나타낸 중조직 직물의 비중(18.48%)은 비교적 낮았다. 그리고 모직물 중 칠직 또는 침모직으로 제직한 絨에도 동물문양이 사용된 점이 특이하다.

4. 동물문양은 남녀 복식 및 기타 용품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물문양이 여자복식에 사용된 비중(43.48%)이 남자복식에 사용된 비중(16.30%)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 의복에는 부분적으로 장식적인 효과를 위해 사용한 경우가 45%로 전체적으로 사용한 경우와 거의 유사한 비중을 보이지만 남자의복에서는 동물문양이 직조

된 직물을 전체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93.33%로서 월등하게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5. 동물문양에는 사상적, 상징적, 벽사적, 길상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며 신과 인간이 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조류승배사상 그리고 음양사상, 신분을 상징하는 상징성, 귀신을 물리치는 벽사성, 다복, 다남, 장수 등을 염원하는 길상성 등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직조문으로 나타난 동물문양만을 다루었지만 조선시대의 동물문양은 자수, 채회, 금박 등 다양한 기법으로도 많이 사용되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천진기 (2003). 한국 동물 민속론. 서울: 민속원, pp. 14-17, p. 33.
- 2) 윤사순 (2001). 한국 민속의 세계, 제9권,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 647.
- 3) 周汎, 高春明 편저 (1996). 中國衣服服飾大辭典. 上海: 辭書出版社, pp. 592-594.  
안상수 (1997). 한국 전통 문양집 박물관 시리즈 1 궁중유물전시관편. 서울: 안그래픽스, p. 98, pp. 110-121.  
John E. Vollmer (2002). *Ruling from the dragon throne - costume the qing dynasty(1644-1911)*. 홍콩: Ten Speed Press, p. 100.
- 4) 석주선 기념민속박물관 (1983-2002). 한국복식, 1호-20호. 경기도박물관 (2003). 동래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 (2001).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고부자 (2002). 조선시대 피륙(직물)의 무늬.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1997). 한국 복식 2천년. 서울: 신유.  
김명숙 (1999). 조선시대 복식 연구 - 洪鳳協 遺衣를 통해 본 朝鮮時代 17世紀 服飾과 織物-. 서울: 학연문화사.  
삼연옥 (2002). 한국 직물 오천년. 서울: 고대직물연구소.  
김영숙 (2002). 조선조 후기 궁중 복식 - 영왕 복식 중 고. 서울: 신유.  
고려대학교 박물관 (2003). 坡平尹氏 母子 미라종합연구논문집 II.  
온양민속박물관 (1989). 安東金氏墳墓發掘調査報告書.  
5) 서울역사박물관 (2003). 趙徽墓 出土遺衣.  
광주민속박물관 (2000). 霞川 高雲 출토유물.  
영주시 (1998). 判決事 金欽祖先生 合葬墓 發掘調査報告書.  
경기도박물관 (2004). 심수문묘 출토복식.  
이순원, 유효선, 조우현 서울대학교 한국복식연구소 (2000). 이석명(李碩明)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6) 이주영, 장현주, 도주연, 장정아 (2004). 보문(寶紋)의

- 유형과 조형성 연구. 복식, 54(2), pp. 17-18.
- 7) 장현주 (2004). 조선시대 직물에 나타난 구름문양의 유형과 특성.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2), pp. 173-174.
  - 8) 紬, 絹 직물은 대부분 평직으로 제직하지만 이미 발간된 보고서에 평직 바탕에 부직 혹은 능직으로 무늬를 나타낸 직물을 紋紬, 英絹라고 기록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능직 혹은 부직으로 무늬를 나타낸 직물을 紬, 絹 직물로 분류했다.
  - 9) 진미희, 권영숙 (1993). 우리나라 조우삼관과 사상적 배경. 복식, 21, p. 133.
  - 10) 국립대구박물관 (2003). 한국의 문양 -용-. 서울: 통천문화사, p. 55.
  - 11) 허균 (2002). 전통 문양. 서울: 대원사, pp. 40-41.